양동시장 지하 주차장 "오는 손님도 내쫓는다"

어둡고 안전시설 없어 위험…휴일에도 텅텅 비어

일주일에 한두 번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을 찾고 있는 주부 김상희(36·서구 농성동)씨는 주차를 위해 양동복개(覆蓋)상가 하부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긴장을 한다.

지하주차장 내부는 차량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데다 10m 간격으로 설치된 조명은 거미줄과 매연 등에 뒤덮여 공포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광주시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맡고 있는 하부주차장은 광주천을 사이에 두고 양동시장 쪽에 150여 대, 건너편에 100여 대의 공간이 마련돼 있지만 휴일에도 70% 정도가 텅텅 비어있을 정도로 이용률이 낮다.

반면 복개상가 가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는 항상 불법주정차 차량이 2개 차로를 점거, 극심한 혼잡을 이루고 있고 양동시장 지하철역 입구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불법주정차 차량의 운전자들은 대부분 양동복개상가를 이용하는 손님과 업자들이지만 지하주차장을 외면하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은 한결같이 '불편'을 호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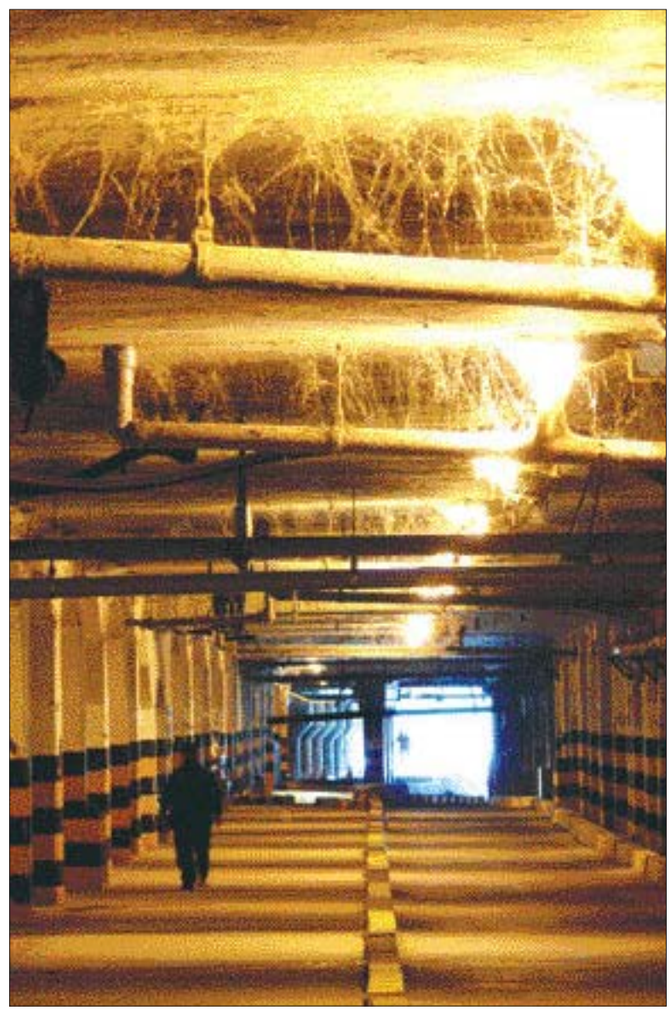
내부 조명시설은 칙칙한 화순 너릿재 터널(중앙 62Lx, 출구 380Lx)처럼 조도(照度)가 낮고, CCTV와 안내원 등 보안시설이 전혀 없어 불안함을 느끼는 여성운전자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다.

특히 복개된 도로를 떠받치고 있는 수백여 개의 기둥 사이에 주차공간이 마련돼 있어 차를 세우기가 쉽지않다. 운전이 서툰 운전자들은 위아래의 굵기가 틀린 일부 기둥들 때문에 사이드미러만 보고 후진했다간 사각지대에 있는 아랫부분에 차량을 긁히기 일쑤다. 하지만 대형마트 주차장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량 긁힘 방지설비나 형광 페인트칠 같은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복개상가로 통하는 철계단은 경사가 가팔라 노약자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르내리기가 힘들다. 복개상가에서 물품을 구입시 주차료(30분에 700원, 초과 15분에 350원) 50%를 할인해 주도록 하고 있지만 홍보가 잘 안돼 요금을 둘러싼 실랑이가 잦다.

양동시장에서 식료품가게를 운영하는 김모(여·42)씨는 "광주시가 시민들 눈에 잘 띄는 광주천변은 말끔하게 공원화시키면서도 코앞에 있는 복개상가 내부는 방치하고 있다"며 "말로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외치지 말고 시장의 매출에 가장 영향을 미칠 주차공간부터 제대로 정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공포의 주차장' 거미줄과 매연으로 뒤덮힌 광주시 서구 양동복개상가 하부주차장. 내부가 너무 컴컴하고 CCTV 등 보안시설이 전무, 상가를 찾는 운전자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호남신학대 커피숍 '티 브라운'

광주 도심 새 명물로

美서 조달 고급 재료
1천500~2천원 저렴
시민들 발길 이어져

호남신학대학교(총장 차종순) 교내 커피숍 '티 브라운'(T·BROWN)이 광주 도심의 새 명물로 떠오르고 있다.

학교 직영을 통해 커피값을 크게 낮춘데다, 최고급 인테리어와 넓은 주차장 그리고 무등산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훌륭한 전망을 갖춘 것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남구 양림동 호남신학대 도서관 건물 1층에 231㎡ 규모로 널찍하게 자리 잡은 '티 브라운'에서 판매되는 커피값은 한 잔에 1천500~2천원. 시내 커피 전문점의 절반 수준이다.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미국 유명 커피전문점에서 조달한 고급 재료로 만들어진다.

화이트 톤의 최고급 인테리어를 갖춘 이 커피숍은 또 시야가 탁 트인 전망유리창을 통해, 광주시내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워진 무등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한다. 특히 밤이면 커피숍 바로 옆 1900년대 초 선교사 저택 '윌슨 하우스'가 야간 경관 조명을 받아 환히 밝혀져 마치 이국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한다.

호남신학대 설립자인 조지 톰슨 브라운(87·미국 남장로 교회) 목사의 이름을 딴 이 커피숍은 '학생과 시민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차 총장의 아이디어에 따라 지난 2005년 5월 문을 열었다.

차 총장은 "시민들에게는 휴식처를,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제공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두에게 사랑받는 도심 속 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붉은 벽돌 외벽과 통유리로 꾸며진 호남신학대학교 교내 커피숍 '티 브라운'과 차종순 총장.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도심 달동네 민·관 공동개발

동명동·양림동 국비 66억원 지원

내년부터 3년간

광주시 동구 동명동과 남구 양림동이 노후불량 주택 개선을 위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정비지역으로 선정돼 향후 3년간 6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거점확산형 정비 방식은 주택공사 등이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전면 재개발 방식과 주민들이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 방식을 결합한 형태로, 민·관이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순환 정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동구 동명2동 74-1 일원의 동명 2구역은 6만3천233㎡의 부지에 568가구 1천25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구내 397개 건물의 노후화와 폭 4m미만의 비좁은 도로(1.2㎞), 상하수도 등의 불량으로 시급한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돼 왔다.

남구 양림동 202-27 일원의 양림 2구역은 부지 21만8천301㎡에 1천765가구 4천13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노후불량 주택 502동· 폭 4m미만 도로 4.3㎞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자치구가 도로·상하수도 등을 정비하고 주택공사가 이들 지역의 20% 정도를 수용해 임대주택을 건설해 거점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거점 지역에는 공동주택과 함께 경로당, 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이 들어선다. 그 다음에는 사업 대상 지역을 4~5개로 나눠 개발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의 거주민들은 거점 지역의 공동주택으로 이주한 뒤 개발이 완료되면 다시 원래 지역으로 돌아오는 방식이다.

기존 전면 개발 방식은 3~5년이 걸리는 개발 기간에 주민 전체가 이주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개발 후 임대료와 집값이 높아져 재정착률이 떨어진다.

시 관계자는 "거점확산형 방식이 도입될 경우 원거주민 재 정착이 쉽고, 주민 주도형 정비사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

광주시, 월말까지

광주시는 광주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유소와 전기·전자 대리점의 불법 광고물, 통행을 방해하는 입간판, 교통시설을 이용한 광고물(래핑버스 등)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합동단속을 벌인다.

시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이들 업종 외에도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에어라이트(공기를 주입한 풍선 모양의 노상 광고물) 등 입간판과 차량 전체를 광고로 도배한 불법 래핑 차량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광고주 등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광주시 여성발전센터

수강생 작품 전시회

광주시 여성발전센터는 개관 18주년을 맞아 7~9일 3일간 수강생 작품 전시 및 발표회를 개최한다.

작품 발표회에서는 ▲펀 댄스 ▲사물놀이 ▲요가 ▲기타 연주 ▲전통의상 패션쇼 ▲현대의상 패션쇼 등이 선보인다.

전시회에는 ▲전통의상 ▲현대의상 ▲홈 패션 ▲사진 ▲수채화 ▲문예창작 등 17개 분야 300여 작품이 센터내 전시실, 다목적실 등에서 선보인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생활안내

교통안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철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상 담

●당직변호사(5일)	
김세환	228-9696
●법무사회 법률상담(5일)	
김형호	370-0600
●가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협회성폭력상담소	671-4050
광주 YWCA	527-0011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번없이	1388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
●병무민원상담	
광주전남병무청	1588-9090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광주 YWCA	524-5400
주부교실	232-0643~4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9-9881

신 고

●학교폭력	
국번없이	112
광주경찰청	222-0112
전남경찰청	366-0112
광주지검	233-2828
●사이버테러	(02)118
●가정폭력	
여성긴급 국번없이	1366
여기동수사대 (광주)	229-0118
(전남)	367-011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1391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1389